광주시,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유치

100명 규모 이달말 업무 개시…여성 일자리 창출
市-라이나생명 18일 투자협약 조인식

광주시가 라이나생명과 100석 규모의 고객센터 신설과 광주시민 우선채용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홍봉성 라이나생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센터 투자협약 조인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광주시는 라이나생명 고객센터의 인력채용, 투자기업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라이나생명은 광주에 고객센터 100석 신설 투자와 함께 광주시민을 우선 채용한다. 상담원 100명을 모두 광주 시민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2년에 걸쳐 최대 7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나생명은 2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보험기업인 시그나(Cigna)의 한국 내 계열회사로 1987년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사다.

라이나생명은 광주고객센터를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채용·육성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중심케어고객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객센터는 서구 치평동 빛고을고객센터 빌딩 내 위치하게 되며, 9월말 사업을 개시해 단계별로 1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이번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광주 유치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라이나생명의 광주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뤄진 성과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지식서비스산업인 고객센터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하 5층·지상 15층의 고객센터 전용빌딩인 '광주 빛고을 고객센터'를 준공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수도권 대비 저렴한 임대료, 전국 최고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 등 입지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현재 62곳의 센터에서 70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시는 행·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상담사 인력양성, 고객센터 한마음 행사,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상담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여성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광주 북구 치매안심센터 개소 16일 오후 광주 북구 동림동에 열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서 문인 광주 북구청장,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나주혁신도시 일대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추진

23일 한전 본사서 공청회
연간 100억 국비 지원 받아

전남도가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일대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오는 23일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비전홀에서 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특구와 같은 대규모가 아닌, 비교적 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 핵심기관과 기업을 모아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혁신도시 일대 2.3㎢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전을 에너지밸리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으로 삼고 혁신 일반산단(기술생태계 순환지구·0.95㎢),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기술사업화 핵심지구·0.41㎢), 한전공대 연구소 및 클러스터 (기술이전 확산지구·0.80㎢) 일대를 배후공간으로 2.3㎢의 특구를 구성한다는 구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에너지밸리를 사업화 거점으로 삼아 친환경에너지 신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한전공대를 연계한 글로벌 과학거점으로 키우는 개발 구상도 발표된다.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디지털변환·전력 ICT 융합 등 친환경 에너지신산업을 특화분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청회에서는 또 특구육성방안을 담은 주제발표(광주전남연구원 박웅희 박사), 문채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장, 한경남 한전 기술전략실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1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주기업들의 R&D 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대덕 연구개발특구도 지정 3년 만에 매출액 42% 신장, 기업 수 51% 증가, 고용은 3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 오는 30일 과학기술부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나주시·한전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과 지자체 간 협약을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사업비 20%와 시설투자비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시,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전국 1위

상반기 194명 채용

광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심사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아이돌보미 확충안을 적극 홍보해 올해 상반기 224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했으며, 이 가운데 19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모두 922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중이다.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심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부모의 대기시간이 크게 감소되고 경력단절 중장년여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아이돌보미 확충 성과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위로 선정된 광주시에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원된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아이돌보미들의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신창동 선사 유적지 선사체험 학습관 건립 본격화

설계 공모 심사작 결정
내년 6월 공사 2021년 완공

국내 최대 광주 신창동 선사 유적지에 들어설 선사체험 학습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습관 건립 사업의 설계 공모 심사 작을 결정했다. 시는 조만간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학습관 대상지 발굴 조사를 거쳐 6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 완공될 이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12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사적 제375호인 신창동 유적 내 1만500여㎡ 부지에 선사체험학습관, 야외체험장,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선사체험학습관에는 전시관, 체험실, 교육·세미나실, 사무실이, 야외체험장에는 사전 교육장, 어린이 발굴 체험장, 벼농사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유적지가 대도시 인구 밀집지에 있는 만큼 공원형 선사 문화 유적지로 만들어 도시민의 여가 공간 활용, 주민참여 유도, 각종 선사 문화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깊이 있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사·연구·수장 공간을 줄이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체험 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2017년 학습관 추진 계획안을 만들고 문화재청과 예산지원, 사전평가 등 협의, 기본계획 용역 등을 마쳤다. 26만㎡ 면적의 신창동 유적은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각종 칠기와 현악기, 신발을 만드는 틀인 신발 골, 수레바퀴 등 선사시대 유적 2만여점이 발굴됐다. 또 논벼(수도·水稻)와 밭벼(육도·陸稻)의 생산기반을 가진 국내 최대 유적지이자 저습지 선사 유적이라는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빛원전 인근 광주 농산물 방사능 '안전'

삼거동·임곡·평동 재배 생산
농산물 22건 검사 '불검출'

광주시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영광 한빛원전 인접 지역인 광산구 삼거동 일원 농산물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한빛원전 원자로 격납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가 제기면서 방사성물질 유출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광산구 삼거동, 임곡동, 평동 등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고추 등 22건의 농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했다.

방사능 오염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항목인 요오드(I)-131, 세슘(Cs)-134 및 세슘(Cs)-137 등 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검사결과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14년도에 방사능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한 뒤 현재까지 대형마트, 재래시장, 도매시장, 학교급식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산 1711건 및 수산물 등 수입산 219건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명됐다.

박종진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앞으로도 시내 유통식품 뿐만 아니라 한빛원전 인접지역 농·수산물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방사능 사고 효율적 대처 광주시, 행동매뉴얼 발간

광주시는 16일 한빛원전 방사능 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매뉴얼을 보완한 '방사능 누출 사고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발간했다.

행동매뉴얼에는 ▲위기 유형 및 관리 체계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주민소개 ▲구호소 설치 및 운영 ▲방사능방재 절차 및 프로세스 ▲방사능 방재 단계별 행동요령 ▲부서별 협업체계▲광주·전남 협업 계획 등을 담았다. 한빛원전의 중대사고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원전 손상으로 인한 사고로 방사능 누출 시 방재대책본부 운영,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등 단계별 대응 과정 및 행동요령과 유관기관별 협업 계획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시 현장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매뉴얼 100부를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했다. /김형호기자khh@